

제2장 건강하지 못한 영성-첫번째 강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쓰신 피터 스카지로 목사는 자신이 생각해온 목사라는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사랑하는 딸을 잃을 뻔 한 일을 그의 책에 적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회를 방문한 한 부부를 집으로 초대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딸아이가 수영장에 빠져 죽을 뻔한 아찔한 경험을 이야기 합니다. 스카지로 목사님 부부는 존 부부와 함께 주일 오후 교회 일과가 끝나고 늦은 점심을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존은 한번 말을 하면 설새없이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터 목사는 그의 이야기를 최대한 경청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끊고 그만하자고 해야하는데 그것이 목사의 도리는 아닌 것 같아 계속해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속에서는 물론 부아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이내 그런 생각과 속으로 화를 낸 것에 대해 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살박이 딸 페이스가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불안하기는 했지만 “뭐 별일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존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습니다. 피터 목사님의 부인은 아이 생각에 이미 대화는 건성으로 듣는 듯했고 마침내 아내가 아이를 찾아야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터 목사님의 세살박이 딸아이는 수영장에서 빠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수영장 난간을 붙잡고 혼심의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피터 목사님은 사랑하는 딸을 잃을 뻔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 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피터 목사님이 존을 대접한 것이나 존의 대화를 싫으면서도 끝까지 들어 준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태도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을까요? 존은 피터 목사님이 답임하는 교회의 교인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교회를 방문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그 전에 한번 자신을 만난 적이 있지만 집에 초대를 할 정도로 친한 사이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가 점심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피터 목사나 사모님은 ‘홀륭한 목사’ ‘홀륭한 사모’ 노릇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심식사에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태도가 옳은 것일까요? 당신은 평신도로써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 한다면 그 목사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겠습니까? 정작 당사자인 피터 목사님은 자신의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피터 스카지로 목사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아내와 나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어리석게 살았을까?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고 미성숙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럽다... 나는 겉으로 친절하고, 너그럽고, 참을성 많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내면의 참 모습과는 상관없이 겉으로만 홀륭한 기독교인인 양 위장했다.”

사실 모두가 남들을 위식하여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야 자신의 내면을 돌아 봅니다. 무엇이 쉽습니까? 근사한 척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이 이야기 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 한 곳 찾아 읽고 우리의 거짓자아에 대해 좀더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 장 21 절~24 절입니다.

“²¹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 ²²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²³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²⁴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1~24).

무엇이 거짓됨인가?

진실됨은 무엇이고 거짓은 또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남을 속이고 하는 식의 거짓, 우리 모두가 초등학교 도덕시간에 배운 그런 거짓됨과 참됨을 성경에서 어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신이 그동안 그토록 참으로 믿어 왔던 많은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류 보편의 윤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보편적 가치과 도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일반인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성경을 읽지 않고 초등교육만 충실히 받아도 그런 것들은 다 알게 됩니다.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도 바로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배운 인간들의 기본윤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다 아는 그런 기초적인 윤리를 어른들인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코메디입니다. 만약 교회 성인예배에서 ‘옆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나쁜 행위입니다.’(도적질 하지 말라!)라고 목사님이 가르치신다면 그것은 그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모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윤리이거든요.

하지만 윤리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그런 보편적 윤리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신비의 영역 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지요. 어떤 자매님 한분이 백화점에 나갔다가 우연히 명품관 진열장에 있는 핸드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은 돈이 있더라도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았고 실제로 검소한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에게도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이야기 했지요. 그런데 그날 핸드백을 보고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꼭 참았습니다. 그녀가 참은 이유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평소 자신의 소신을 지키려는 것이었죠. 물질의 유혹,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뿌리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과 같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 돌아온 후 그 자매님은 가끔 그 가방 생각이 났지만 그래도 점점 그 핸드백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교회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참석한 다른 자매님이 바로 그 핸드백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자매님의 눈에는 그 핸드백만 보였습니다. 자리를 옮겨도 그렇고 차를 마셔도 그렇고...그러면서 그 자매님의 내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에서는 핸드백을 들고 온 그 자매님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사치를 해도 되나?’하는 마음으로 그 핸드백 때문에 그분의 신앙심을 깎아 내렸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도 그것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살 능력도 되는데 자신의 신앙적 소신, 더 엄격히 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의 틀을 깨는 것이 매우 두려웠고 세상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매님의 경우 무엇이 자신의 참 모습이고 무엇이 자신의 거짓 모습일까요? 신앙심을 지티는 소신 안가요? 핸드백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인가요? 우리는 참과 거짓을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에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로 하지요. 앞에서 읽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를 헬라어 원어성경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1절) 만약 사실 당신들이 그[예수]를 들었고 (εἴ γε αὐτὸν ἠκούσατε)
그리고 그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으며 (καὶ ἐν αὐτῷ ἐδιδάχθητε.)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처럼 (καθὼς ἐστὶν ἀλήθεια ἐν τῷ Ἰησοῦ.)

(22절) [당신들은] 당신들을 벗어버렸습니다 (ἀποθέσθαι ὑμᾶς)
(=) 옛 행실들을 따르던 (κατὰ τὴν προτέραν ἀναστροφὴν)
(=) 그 옛사람을 τὸν παλαιὸν ἄνθρωπον
(=) 자신을 기만하는 욕망에 따라 파괴되고있는 (당신들을)
(τὸν φθειρόμενον κατὰ τὰς ἐπιθυμίας τῆς ἀπάτης.)

(23절) 당신들은 당신들의 마음 안에 있는 영에 의해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ἀνανεοῦσθαι δὲ τῷ πνεύματι τοῦ νοῦς ὑμῶν)

(24절) 그리고 당신들은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καὶ ἐνδύσασθαι τὸν καινὸν ἄνθρωπον)
(=)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τὸν κατὰ θεὸν κτισθέντα)
진리의 의와 거룩함에 의해 (ἐν δικαιοσύνῃ καὶ ὁσιότητι τῆς ἀληθείας.)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도바울은 지금까지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쳐왔는데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 그 자체이고, 그 예수님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셈이지요. 그리고 그가 가르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순서대로 읽고 있으나 그것보다는 동사의 시제에 맞추어 행위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좀더 올바른 해석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2절부터 23절은 다음과 같은 문장구조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22절: 당신들은 옛사람은 벗어버렸습니다.(과거)
23절: 당신들은 지금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현재)
24절: 당신들은 새사람을 입었습니다.(과거)

그러니까 사도바울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롭게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옛사람은 없어야 정상입니다. 늘 새사람만 나타나야지요. 그런데 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번 훈련과정입니다.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들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헛깨비같은 것에 흘러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사도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옛 사람은 두가지를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옛 행실들’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행실’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세운 원칙을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으로 알고 그것에 얽매어 사는 삶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늘 뒤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쉬운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속으로 부

아가 치밀어 오릅니다. 집에 오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살면서도 그것을 억지로 외면하려 합니다. 자식이 좋은 학교 가야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며, 가족 모두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못견뎌 하지요. 이럴 때 못견뎌 하는 그 행동들이 ‘옛 행실들’입니다. 이런 ‘옛 행실들’은 자기 내면에 있는 잘못된 욕구가 조종해서 나오는 행실들입니다.

둘째로 사도바울은 “자신을 기만하는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혹이란 결국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이 속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자신을 먼저 속입니다. 그 욕망은 외부로 나타날 때에는 매우 건전해 보이고 남들이 부러워할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것이 ‘아니오’라는 말입니다. ‘배려’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자신은 배려할 능력도 안되는데 남들을 배려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파괴해서라도 남들에게 좀 더 좋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앞의 예에서 피터 스타지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다음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더 듣는 것이 어떨까요?” 또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 보니 당신의 말의 핵심은 이런 것 같은데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주일 오후라 제가 피곤하니 조금 쉬는 것에 저에게는 좋을 듯합니다.” 등등 이런 말들을 목사가 성도에게 하면 안되는 것이고 나쁜 목사라는 생각, 그래서 남들에게 훌륭하고 근사한 목사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요. 사도바울은 이러한 생각들이나 행동들을 ‘자기를 기만하는 욕망’이라고 말하며 그것은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진리의 의와 거룩함에 의해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동산을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움이 없었지요.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스스로 내리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후 변했습니다. 스스로가 도덕적 판단을 내린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바로 자신을 가리는 일과 숨는 일이었습니다. 나뭇잎으로 가린 그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진짜 그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바로 그 모습, 벌거벗은 것이 그의 진짜 모습입니다. 물론 밖으로 보이는 손수 지어 입은 그 옷은 그의 거짓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잘 교육된, 훈련된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인 냥 착각을 하지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이 자신의 일부로 착각을 하고 돈을 가진 사람은 돈 뒤에 자신을 숨지요.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그 명예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본질, 내면은 보지 않고 그 권력과 돈과 명예를 숭상하도록 훈련받은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좀 전에 핸드백을 갖고 싶어 했던 그자매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문제는 그것이 자신의 내면의 욕구와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억제하지요. 그것을 신앙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좋은 신앙심, 올바른 신앙심일까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의 의로움, 거룩함을 자신의 의지나 감정에 역행하는 어떤 것들로 규정을 하고 그것을 가꾸는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외면을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치장하려 했을까요? 그것을 기독교 상담심리학자인 래리 크랩은 ‘나쁜 의도’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것이고 결과는 인간들이 만족할만한 것이 나오지만 결국 그 내부에 숨겨진 의도는 매우 자기 중심적이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인간의 인간존엄성 챙기기에 불과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쁜 의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집중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거짓자아가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이 내면으로부터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다면 당신은 거짓 자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왜 포기하려고 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거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이므로 당신은 죄로 인해 망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해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등등

수많은 내면의 속삭임들은 우리가 듣기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에 당신이 얽매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행하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거짓자아’에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장 쉽게 속는 거짓자아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허덕이는지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두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출처불명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종교 중독자로 만들고 거짓자아로 뿔뿔 뿔뿔 괴물을 만들어 내는 주범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해 본 거짓자아

성경을 읽다보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삶의 태도나 종교적 신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들도 그들의 삶을 비판하곤 하지요. 율법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리새인’ 같다고들 말을 합니다. 물론 유대주의자에는 바리새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도 있고 에센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나오지 않지만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이 잡혀오시는 바람에 사형직전에 죽음을 모면한 바라바도 열심당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주위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며 결국은 그들의 손에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소위 ‘홀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들보다 나은 점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요? 잘못된 종교적 열정은 신앙을 왜곡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건전한 자아상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를 빌어 말한다면 ‘거짓자아’의 주범입니다. 성경 한곳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 장 15 절에서 33 절입니다.

[1]⁴³ 화 있을찢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⁴⁴(없음)

[2]¹⁵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3]¹⁶ 화 있을찐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¹⁷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나 ¹⁸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찌라 하는도다 ¹⁹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나 ²⁰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²¹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²²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4]²³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찌니라 ²⁴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5]²⁵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²⁶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6]²⁷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²⁸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7]²⁹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³⁰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³¹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 됄을 스스로 증거함이라 ³²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³³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마 23:13-33).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일곱번에 걸쳐 “화 있을찐저”라고 외치십니다. 이 ‘화 있을찐저’는 헬라어로는 ‘호우나이’ (Ὁὐαι) 인데 이 단어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비통을 동시에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도 일곱 번씩이나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들이 고통스럽고 비통을 당해야 할 일을 한 것이 도대체 무엇들이죠? 오늘의 주제 ‘거짓자아’와 연결하여 이들이 갖춘 것들, 밖으로 보이는 것들과 실제 그들의 모습을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 말씀은 유대주의의 걸치레, 위선과 종교의식을 비판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첫째, 거짓자아는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13 절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문을 닫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쓰인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그리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들 앞에만 가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나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과 거짓자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하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을 잘 꾸미도록 강요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글에서 읽었는데 한국의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가장 황당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너무 좋은 말입니다. 또 맞는 말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과 인간간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좀 사랑해 달라!” 그런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정 반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랑하라!”입니다. 가족이 나를 사랑하지 않든 안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든 안하든 친구가 나를 사랑하든 안하든 그것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고 나는 무조건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힘이 들잖아요. 왜 힘이 들까요? 자신의 거짓자아는 외부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받아만 성장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외부의 칭찬, 외부의 보살핌, 배려, 사랑 등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런 성향 때문에 쉽이 없는 것입니다. 쉽이 없는 삶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못누리는 삶입니다.

신앙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늘 무언가를 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셨나요?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드나 안드나, 동역자들이 열심히 함께하나 안하나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군소리 없이 사역을 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사역을 하면서도 인간들로부터 무언가 칭찬도 바라고 동기부여도 바라는 것 아닌가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예를들어 보지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자리 가실 때에는 성령충만(?)해서 떠납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배우고 현지 적응도 하고 열심히 사역에 매진을 합니다. 한해 두해 지나면서 점점 외로움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 보지요. 그동안 밀렸던 기도도 한꺼번에 해보고, 성경도 읽고 심기 일전해서 또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왜 나만 이런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열매없는 사역에 매달려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 때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을 하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것처럼 느끼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그곳에서는 ‘거짓자아’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

거든요. 선교지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 거짓자아가 그곳까지 함께 와서 가끔 괴롭히는 것이거든요. 문득문득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지는 욕망말이지요.

둘째, 거짓자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15 절을 읽으십시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동료의식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장소, 시간, 컨텐츠, 심지어 사용하는 언어도 같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세리가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리라는 직업을 버려야 했고, 철저하게 바리새인 교육을 받아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사상에 동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삶 그자체가 바리새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외견상 그들의 삶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말로는 아니라지만 실제로 가르침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기 전에는 그들의 삶 자체는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거짓자아’로 뚫뚫 뭉쳐진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가하신 것이지요.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중생활입니다. 교회에서의 생활, 가정에서의 생활, 사회에서의 생활이 다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 같아요. 최소한 가면이 세개쯤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교회분들 만나서는 그리스도인 모드로 들어가지만 사회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벌고 아끼려고 악착같이 행동하잖아요. 미국은 그런일이 드문데 한국에서는 교통문화가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다지만 그래도 아직 운전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차 안에서 화들을 많이 냅니다. 누가 불법적으로 끼어들기라도 하면 욕을 해대고 심지어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잘 그렇게 안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양보를 하고 무슨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에 불편을 느끼는 것은 그 문화가 안맞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교회를 옮길 때도 같습니다.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반겨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외톨이가 된 기분이 되지요. 그러다가 점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사역도 하고 여러가지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어습관, 생활습관입니다. 교회에 오면 그 교회용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물론 자신의 내면에는 또 다른 내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가정에서도 종종 교회용 인간이 될 것을 강요당합니다.

예를들어, 목사님들 처럼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집에서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에서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거나 분노를 표출하면 아내가 말하죠. “당신은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안 그러면서 왜 집에서는 그래요?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마구마구 퍼부어 대면 조금 대꾸를 하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오늘도 부부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잘 막았죠? 그래도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긴 한 모양이에요.” 이 경우 누가 문제인가요? 잘못을 지적하고 교회의 삶의 태도와 가정에서의 삶의 태도가 다름을 지적하는 아내인가요? 아니면 부부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지혜롭게 처리한 남편인가요? 둘 다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남편들이 밖에서든 안에서든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남편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을 합니다. 많은 아내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요. ‘집에서 바가지라도 긁어대니까 그나마 남편이 그 정도로 변화된 사람을 산다’고 말이지요. 아내들이 바가지를

굽어대니까 그나마 저 정도의 인간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그래 나의 아내는 너무 고마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참 사람이 영망이었을꺼야. 그런데 이 사람 덕분에 이 정도 인간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나요? 안 그래요. “으이구 또 잔소리네.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것이라고 했으니 지금도 참고 피하지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좀더 성숙한 내가 참자.” 이럽니다. 그러니 평생가면 그것이 고쳐지겠어요. 요령만 늘고 가식만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 늘어난 요령과 가식들이 바로 ‘거짓자아’ 인 것입니다. 그게 굳어져 아예 패턴이 되었어요. 패턴이란 늘 그답이 나오는 것이지요. 패턴이 성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길들여진 패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벗어버려야 진짜 자기가 보입니다. 진짜 신앙은 그것을 벗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셋째, 거짓자아는 늘 자기자신에게 약속을 하고 지킬 것을 강요합니다

16-22 절을 보면 맹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맹세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맹세 그자체를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하면 안하느니 못한 것들이죠. 통상적으로 약속에는 약속의 대상자 즉, 상대방이 있습니다. 시간을 잡기도 하고 회의를 잡기도 하고 오늘같이 강의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약속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와 내가 하는 약속입니다. 새해만 되면 다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하는 분들도 있지요. 담배를 끊자! 술을 끊자! 책을 한 달에 한권 씩은 읽자! 성경통독하자!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자! 등등 수 많은 약속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그러면 약속을 하는 나와 그것을 지키는 나는 같은 인격체 인가요? 아니면 서로 다른 인격체 일까요? 하나는 거짓된 자기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참 자기 모습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주문을 하는거죠? 거짓자아가 참 자아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자아는 그것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짐만 하는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자아가 그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결국 어느정도 성취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존감이라는 것이 확 올라가잖아요. 문제는 결국 그 사람을 망치게 되고 이웃을 망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너도 이렇게 되어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바울도 나를 닮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가 어떻게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누리는 삶을 닮으라는 말입니다.

건전한 자아상을 가진 분들은 모이면 두가지 특징을 갖는 겁니다. 첫번째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도 자신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렇게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인생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실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남들에게 강요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경험인데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완전한 합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으니 서로가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둘째, 우리는 서로 서로가 하나도 겹치지 않는 완전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부라고 할지라도 부모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완전한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말이지요. 서로가 건드리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간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두가

지 양립할 수 없는 인격적인 결합과 독립이 우리 그리스도인 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타인을 향해 암묵적이든 실질적이든 어떤 요구를 하거나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힘들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은 이론으로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상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진행해 보기로 하지요.

그런데 이런 완전한 합일과 완전한 독립은 거짓자아와 참자아의 관계 즉, ‘두개의 나’ 사이에서도 가능합니다. ‘두개의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합일 되었을 때에는 둘 중에 하나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평강이요 기쁨이요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과 기쁨이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언제 가짜일까요? 거짓자아가 살고 참자아가 매몰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거짓자아가 주는 거짓 기쁨, 거짓안식, 거짓평화가 잠시 지배를 하지요. 그런데 이내 참자아가 살아납니다. 참자아는 절대 죽지를 않아요. 그러면 두 자아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거짓자아는 참자아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것이 내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슬픈 사실은 거짓자아의 승률이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누림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거짓자아와 참자아가 완전히 독립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때는 언제일까요? 거짓자아를 완전히 죽였거나 정신병에 걸렸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자신의 실존을 거부하다 보니 생긴 문제입니다. 거짓자아를 무너뜨리는 것 보다는 이 중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둘이 약속을 할 필요도 다짐을 할 필요도 없지요.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조차도 인격이 이렇게 분리된 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타인이 보기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이런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처방은 유일합니다. 철통같은 아성인 거짓자아를 강제로 하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벨탑같은 것이지요. 바벨탑이 무너져야 그것을 통해 하늘에 오르려는 생각자체를 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누구인지 원래의 자기를 찾아갑니다.

넷째, 거짓자아는 자신의 잘못을 다른 것으로 보완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23~24 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는데 정작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고,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루 살이와 낙타를 결정하는 기준은 바리새인들에게 있고,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하루살이인지 낙타인지를 늘 살피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행위의 판단 기준은 물론 자신이고 전통입니다. 성경말씀은 자신들의 해석기준에 맞추어져 왜곡되어 이해되고 있었습니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을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자신들이 잘한다고 생각한 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을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죄책감은 또 다른 행위를 만들어 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혹사시켜서라도, 헌금을 많이 해서라도, 자신이 잘못된 부분을 커버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더러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한 향수를 뿌리는 겁니다. 그 향수는 다른 사람들은 물론 본인의 코까지 마비시켜 원래 자신에게 나던 냄새를 가립니다.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가 대표적입니다. 자신에게 요구되는 영적인 변화를 회피하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적자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흑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왜 바리새인들이 십일조를 드렸을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의 부족함을 좀 가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그런 식으로 커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거짓자아를 발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수아비임을 깨닫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지름길이지요.

다섯째, 거짓자아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도록 합니다.

25 절~28 절에는 화 있을찐저 라는 단어가 두번 나옵니다. 이는 당시 유대주의의 핵심 가치인 ‘정결’과 ‘의를’ 나누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5~26 절은 정결에 관한 문제를 다룬 것이고, 27~28 절은 의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이지요. 이 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욕하지 마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속으로는 화가 나면서도 아닌 척, 싫은데도 싫다고 못하고, 늘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잖아요. 그게 본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다룬 것 처럼 그것이 ‘거짓자아’입니다. 자신이 아닌 어떤 것이 자신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참 자아’라고 속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열심이 봉사를 하는 한 분을 예로들어 보겠습니다. 그 분은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누가 보나 안보나 열심이지요. 그런데 어느날 자신이 일하는 그곳을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셨어요. 그 목사님은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이내 아무 말없이 확하고 스킨하며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지요. “목사가 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와서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냐? 너무하는 것 아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평강이 깨집니다.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쉬고 싶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 주지 않은 이 일을 내가 왜하나 싶은 거예요. 이럴 경우 ‘참 자신’은 무엇이죠? 쉬고 싶은 나입니다. 그 모습이 진짜예요. 그럼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말이죠. 그런데 궁시렁 대면서도 계속합니다. 앞에서는 아무말도 못해요. 내가 이런 것은 싫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한다. 그게 나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규정해 놓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이중성이라고 하고 위선이라고 합니다.

여섯째, 거짓자아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29~33 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약 그 예년에 살았다면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진리 안에 있으며, 진리를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이처럼 거짓자아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옳으니 내말을 들으라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정통이고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살상은 어떠했습니까? 결국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그것도 이 말쑥을 들은지 바로 얼마 뒤에 말이지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내면을 잘 살펴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공부하는 동기가 뭐죠? 왜 내가 성경공부를 하고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죠? 하나님을 위해서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기서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그의 책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징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어 보세요.

- 하나님ی 아닌 내 만족을 위해 그분의 사역을 한다.
-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은 그 일을 그분의 이름으로 한다.
-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한다.
-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기독교인의 미덕을 실천한다.
-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움과 해결되지 않은 내 문제를 위해 성경의 진리를 임의대로 적용한다.
- 하나님의 진리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판단한다.
-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목적으로 내가 한 사역을 과장한다.
- ‘주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주님이 이 일을 명령하셨어’라고 말한다.
- 가족, 사회, 국가의 잘못을 하나님의 주권에 입각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구절을 인용해 적당히 정당화하려 한다.
-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하는 척 하면서 내면의 약점을 은폐하고, 실패의 이유를 적절히 둘러댄다.
-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을 회피하고, 내 목적에 맞게 성경의 진리를 선택적으로 인용한다.

여러분들은 몇가지나 해당되나요? 저는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많은 경우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지요. 그것이 거짓자아의 특징입니다. 참자아는 자신이 온전히 별거벗은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영광이 없고 하나님께만 있게 되는 것이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늘 남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신의 삶에도 솔직하지 못하는 것,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도 나와 같은 사람을 살도록 요구하는 것, 타인과 자신간의 경계를 잘 모르고 서로 얽힌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나를 올바르게 발견하고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되었느냐?를 아는 것이 건전한 신앙생활의 시적점이 됩니다. 비로소 신앙인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 전에는 신앙생활이 아닌 내가 나를 섬기는 생활입니다. 정말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자신을 섬기는 ‘자아숭배’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도 다가설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